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박재희
석천학당 원장

한파(寒波)는 글자 그대로 차가운(寒: cold) 파도(波: wave)이다. 겨울철 사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으로 급격하게 기온이 떨어져 갑작스러운 매서운 추위가 파도처럼 몰려올 때 한파 주의보나 한파 경보를 발령한다. 시골에서 한파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수도관이 얼지 않게 하는 일이다. 계량기가 동파되지 않도록 이불로 싸고, 여기저기 바람 들어오는 구멍도 막아야 한다.

그런데 막상 영하 10도의 한파를 맞이해 보면 그냥저냥 견딜 만하다. 미리 준비를 철저히 해서인지, 아니면 매서운 추위가 올 것이라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서인지 생각했던 만큼 차가운 파도가 아니다.

위기는 미리 알고 맞이하면 위기가 아니다. 아무런 준비와 예측 없이 맞이한 위기가 진짜 위기다. 위기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것이고, 예상하지 못했을 때 그 피해가 커진다. 아열대 지역인 대만에서 영상 4도에 한파를 이기지 못하고 90명이 숨졌다는 소식도 있고, 인

한파(寒波)를 마주하는 방법

도나 홍콩에서 영상 기온의 추위에 많은 사상자가 나왔다는 뉴스도 들린다. 경험도 없고, 준비도 하지 않으면 작은 파도에도 쉽게 무너진다는 말이 실감이 난다.

인생의 여정에도 한파가 있다. 그러나 예측한 대부분의 한파는 잘 견뎌 낸다. 건강이나 재정적 어려움이 예측이 되었다면 이미 대비도 있었기 때문이다. 평소 애부지런히 건강을 체크하고 조심하면 그만큼 다가올 위기의 강도는 낮아진다.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 대비하여 비용을 줄이고 대비하면 경제 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다.

그러나 예측하지 못하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련의 파도를 아무런 대비 없이 마주하면 쉽게 넘어가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살마 이 정도에 내가 무너지겠어?'라는 자만과 안도가 파도의 크기를 더욱 키운다. 아무런 준비 없이 호언장담하며 맞이한 시련이기에 순식간에 붕괴를 만나게 된다.

"조직이 혼란(亂)이 빠지는 것은 안정(治)되었다고 안심할 때 시작된다(亂生於治, 난생어치). 용기(勇)를 자랑하는 사람이 순간 겁쟁이(怯)로 변한다(怯生於勇, 겁쟁어용). 강(強)하다고 자만하는 사람이 약(弱)자로 변하는 것은 시간문제다(弱生於強, 약생어강)." '손자병법'의 저자 손무(孫武)는 군대 조직이 무너지고, 병사들이 겁쟁이가 되어 낙약해지는 위기를 맞이하는 이유를 자만이라고 정의한다. 완전하다고 생각했던 조직이 순식간에 혼란에 빠져 몰락하는 것은 호언(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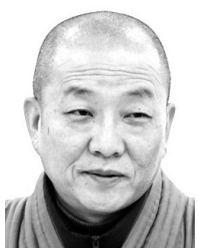
言)과 장담(壯談)이다. 호탕하게 자신의 강함을 떠들어 댔기 때문에 아무런 대비도 없었고, 준비 없이 맞은 편치 한 방에 손쓸 틈도 없이 무너지는 것이다. 어떤 위기에도 끄떡없다고 자신했던 조직의 몰락을 보면 허탈하기까지 하다. 그토록 강하고 용감했던 사람이 한 순간 겁쟁이가 되고 낙약해지는 것을 보면 강한 게 영원히 강한 것이 아니고, 센 게 영원히 센 것이 아니다. 치란(治亂)과 용겁(勇怯)과 강약(強弱)은 영원한 것이 아니며, 잠깐의 방심과 자만 때문에 역전되고 뒤집어진다. 그것이 우주가 운동하는 반(反)의 방식이다.

그토록 강해 보였던 사람이 무너지면 한순간에 낙약한 겁쟁이도 될 수 있고, 그토록 강했던 조직이 한순간 모래알처럼 부서질 수 있고, 그토록 정돈 되었던 조직이 한순간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가슴을 섬뜩하게 한다. 잘 나가던 사람, 안정된 가정, 권력을 쥔 정당, 승승장구하던 기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망하는 것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질나갈 때 더욱 조심해야 한다. 강할 때 더욱 경계해야 한다. 편안할 때 더욱 두려워해야 한다. 지금의 승리에 도취되면 영원히 승리를 유지하지 못할 것이다, 강한 자는 무너지고, 안정된 조직도 하루아침에 몰락할 것이다. 차가운 파도, 겨울 한파를 맞이하여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확실하다. 겸손하고, 준비하고, 대비하고, 경계하고, 조심해야 한다. 그래야 한파(寒波)가 평범한 파도, 평파(平波)가 된다.

종교칼럼

돌아오지 못한 이들



중현
광주 중심사 주지

이 직면해야만 하는 현실에 대한 불만함이었을 뿐, 무관심에 대한 반성은 아니었다.

그러나 배를 타기 위해 7년여 만에 다시 팽목항에 도착한 순간, 부끄러움이 차올라 그 어디에도 눈을 들 수 없었다. 팽목항은 여전히 황량하고, 을씨년스럽고, 초라했다. 오히려 당시의 넘쳐나던 사람들과 물건들이 사라진 팽목항은 행한 느낌을 더했다. 터미널 같은 걸짓는 공사 중이라 어수선할까봐 더해진 그곳에 아주 초라하게 '세월호 기억관'이라는 팻말 하나가 덩그러니 서있었다. 팻말은 100여 미터 떨어진 허름하고 작은 컨테이너를 가리키고 있었다.

오후의 무심한 햇살이 반짝이는 바다, 길고도 기인 제방, 그리고 제방 끝에 홀로 서 있는 등대는 잔인할 정도로 7년 전 그대로다.

세월호의 아이들이 여전히 돌아오지 못한 지금, 또다시 158명의 외롭고 쓸쓸한 영혼이 차가운 구원을 떠돌고 있다. 심지어 우리는 그들이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한다. 인간이 사회를 이루며 사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 홀로 할 수 없는 것을 더불어 하기 위함이다. 사회 시스템은 개인의 삶을 보호하고, 개인은 사회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한다. 이것이 인간이 지금껏 지구상에서 꾸려온 삶의 방식이다. 일상적인 사회 시스템이 일상적으로 작동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일이다. 모든 것이 세월호의 그 시간들로 되돌아가고 있다. 이제 갓 한 달이 지났는데도 언론에서 관련 기사를 찾으려면 한참 아래로 스크롤해야만 한다.

172번째 무등산 풍경소리를 여는 인사말에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지금은 더 이상 추모할 시간이 아니다. 2012년, 2013년, 2014년의 시간들이 데자뷰처럼 반복되고 있다. 지금 우리는 깊은 사색과 성찰을 거쳐 새로운 전진을 해야 할 때이다. 함께 사는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다할 시간이다."

그러나 다음 날 새벽, 곰곰히 생각해 보니 전날의 발언은 지극히 잘못된 것이었다. 우리는 아직 그들을 충분히 추모하지 못했다. 애도하지도 못했다. 우리는 아직 그들을 제대로 보내지 못했다. 제대로 추모하지도 못했는데 벌써 잊혀지고 있다. 충분히 슬퍼하고 충분히 기숨 아파하는 것이 함께 사는 세상을 살아가는 최소한의 양심이다. 그 고통을 함께 아파하지 않고, 그 상실을 함께 슬퍼하지 않고, 어찌 같이할 수 있을까.

제대로 이별하지 못한 이들이 구원을 떠돌고 있다. 그날의 비는 그들의 흐느낌이었다. 하늘이 인간을 대신하여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었다. 하늘은 자신의 넓은 품을 내어, 그들의 통탄을 따뜻하게 어루만지고 있었다.

50여 년 만의 가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지금 이 사회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다. 함께 아파하지 않는 마음, 이기적인 마음, 사람을 마치 돌맹이 나부랭이처럼 취급하는 마음, 나만 잘살면 그만이라는 마음, 무관심한 마음. 그들이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우리들의 마음이다.

그날, 한 맺힌 영혼들이 차가운 빗방울 되어 콘크리트 바닥을 향해 수직으로 강하하였다. 돌아오지 못한 이들이 그렇게 산산이 부서지도록 내버려 뒀서는 안 될 일이다.

社說

'위기의 유자산업' 고부가 가치화 서둘러야

고흥의 대표 특산물인 유자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가공·유통·무역을 맡고 있는 수도권 대기업들이 코로나19와 그로 인한 중국 봉쇄 등의 이유로 지난해보다 유자 가격을 대폭 낮추고 있기 때문이다. 유자 절임 상당수가 재고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손해를 감수하고 기존 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고흥군 유자가공업체협회는 최근 간담회를 열고 가공업체들이 농가로로부터 공급받는 유자 최저 가격을 향후 5년간 1kg당 250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2900~3200원보다 인하된 것으로 농가 대표들이 주장한 27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번 최저 가격 설정으로 유자 농가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게 됐다. 가뜩이나 가뭄 등의 영향으로 작황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공급 가격이 낮아지면 소득 감소는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유자 산업 위기가 지역 경제의 침체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전남도내 유자 농가는 고흥군 2000여 가구, 완도군 340여 가구로 두 지역에서 전국의 60%가 넘는 7700톤을 생산한다. 특히 고흥의 경우 인구 6만 4000여 명 중 1만~2만 명이 직간접으로 유자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한때 고흥군의 효자였던 유자 산업이 위기에 처한 것은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탓이 가장 크다. 유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생산·가공·유통은 과거 방식을 답습하고 있고, 유자청 하나로 명맥을 유지하는 등 파생 제품 개발에 소홀한 탓이다.

따라서 고흥 유자가 재값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다양한 파생 상품과 완제품을 만들어 유통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농가들도 쉽게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소규모 가공·판매 시설을 지원하는 등 유자 산업의 고부가 가치화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여전한 5·18 트라우마... 치유 지원 강화를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 절반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를 호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소득도 보훈 유공자의 75% 수준에 그쳐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대 산학협력단은 광주시의 의뢰로 실시한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 실태 조사' 결과를 어제 발표했다. 전국에 거주하는 5·18 피해자 2009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 결과 가장 심각하게 겪고 있는 문제로서는 정신적 고통(56.4%)이 꼽혔다. 특히 전체의 47.1%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했다. 신체 부상 및 질병 후유증을 겪고 있는 피해자도 54.0%나 됐다.

경제적 실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9.1%가 건강과 나이 때문에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경제 활동을 하더라도 임시·일용 근로자 비율(13.7%)이 높아 불안정한 상태였다. 소득 수준은 본인의 경우 연평균 1821만원, 가구 소득은 2851만원으로 조사됐

다. 이는 보훈 유공자 소득(본인 2460만원, 가구 3795만원)의 75% 수준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5·18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 후유증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점을 보여 준다. 특히 42년이 지났음에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는 피해자가 많다는 것은 아반적인 국가 폭력에 의해 생긴 트라우마는 평생 잘 지워지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 국가 폭력은 피해 당사자와 유가족은 물론 간접 경험자에게도 집단적 트라우마를 안기는 심각한 문제다.

국가 폭력에 의한 정신적 고통의 심각성이 확인된 만큼 정부와 지자체는 5·18 피해자에 대한 복지·의료 지원은 물론 보다 적극적인 치료에 나서야 한다. 당분간 광주트라우마센터를 활용해 다양한 치유·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광주에 들어설 예정인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을 최대한 앞당겨 전문적인 치료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無等鼓

잉글랜드 최고 스트라이커 중 한 명이었던 게리 리네커. 프로 선수로 뛰는 동안 단 한 번도 경고와 퇴장을 받은 적이 없어 '그라운드'의 신사'로 불렸던 그는 월드컵에는 12경기에 출전해 열 골을 넣었다. 특히 1986년 멕시코 월드컵에서는 헤트트릭을 기록하며 잉글랜드를 8강까지 이끌고 대회 득점왕을 차지하기도 했다.

리네커는 "축구는 22명이 공을 따라 이리저리 뛰어다니지만 결국 득일이 이기는 스포츠다"는 명언을 남겼다. 그는 왜 라이벌 독일에 대해 이렇게 극찬했을까? 그건 아마

공은 둥글다

독일이 월드컵 등 큰 대회에서 실력 이상으로 좋은 성과를 거뒀는데 대한 부러움 때문이었을 것이다. 경기 내용에서 이기고 승부에서도 이기는 게 브라질 축구라면, 내용에서는 우세하지만 승부에서는 지는 것이 스페인 축구고, 내용에서 밀리더라도 결국 승부에서 이기는 것이 독일 축구라고 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축구는 어떤 평가를 받을까? 한국은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제외하면 아시아 최강의 실력에 걸맞

은 성적을 올리지 못했다. 대체로 투지를 앞세우는 정신력의 추구를 해왔으며, 한때 4강에 오르며 발전된 축구를 보여줬지만 곧바로 정신력의 추구가 회귀했다.

벤투는 2018년 국가대표팀 감독에 선임된 이후부터 줄곧 '빌드업' (Build-up)을 주창해 왔다. 골키퍼에서 최전방 공격수까지 공을 소유하고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경기의 주도권을 가지고 득점을 시도하는 방식이다. 벤투의 빌드업은 우루과이전에서는 효과적이었지만 가나에 첫 골을 내주고 나서부터 빛을 잃었다. 포르투갈과의 3차전에서는 선수 운용과 전술에 변화가 불가피한 이유다.

한국의 16강 진출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운 좋게 포르투갈에 이기더라도 자력으로 오를 수는 없고, 우루과이와 가나 경기 결과를 지켜봐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적이 필요하다. 다행히 카타르는 한국 추구에 기적의 땅이다. 1994년 미국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에서 막판에 일본을 제치고 극적으로 본선 진출 티켓을 거머쥔 '도하의 기적'이 일어난 곳이다.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공은 둥글다. /유재만 편집담당1국장 jkyou@

기고



김명환
전 전남도교육위원회 부의장

선량한 아이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교육

하는 제도를 마련했으면 한다. 그런 제도를 구축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면 당분간이라도 그들을 격리시키는 것도 고려해 보자. 별도 학교 설립도 좋고, 별도 교실도 좋다. 아니 '수업 방해 죄목'이라도 만들어서 선생님의 수업을 방해하고 학생들의 학습을 훼방 놓는 일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학생이기를 포기한 극소수의 아이들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굽어 썩어 가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수용하고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기엔 문제가 너무나 심각해졌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일차적으로는 교육당국이 해야 한다. 가정교육 운운하며 보호자에게 호소하기에는 작금의 가족 현실이 너무나 복잡 미묘하다.

심지어 전도된 자식 사랑으로 양친 부모 밑에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식'으로 길러지는 아이들도 있다. 만일 교육당국이 개선을 위한 유의미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단위 학교별로 지역교육청별로 등급 거부라도 추진해 이를 이숙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인가 처음부터 모범생으로 살아온 사람보다는 돌아온 탐야를 영용시켜 주는 잘못된 행태를 보여 왔다. 이는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삶 전체가 모범적인 인간이 대우받고 존경받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어도 남에게 피해가 가는 인간은 결코 되지 말자'는 뚜렷한 지향점을 갖도록 교육해야 한다. 이에 대해 표면적으로 문제 삼

는 학부모는 없다. 결코 자신으로 인해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탈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철저히 교육시키야 한다.

이는 우리들이 지향해야 하는 교육 목표의 한 단면이 아닐까. 무슨 특기를 기른답시고 기고만장한 아이를 기르고, 누구 기를 죽여야 속이 시원한지 무슨 기를 살린답시고 자기 외에는 안하무인적인 인간이나 기르는 교육은 인류를 파멸로 몰아넣는다. 적어도 나로 인해 누군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교육만 하나 제대로 해도 성공한 교육이다.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자랑스러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은 기성세대들이다. 기성세대가 대한민국을 위대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한 원동력은 뭐니 뭐니 해도 지난날의 교육 제도였다.

나이든 우리들이 옛날 선생님들에게 교육을 받았을 때, 또 지난날 우리들이 학교 현장에서 교육을 시켰을 때, 그것의 타당성을 떠나 오늘의 학교 현장의 모습과는 달랐다. 필자가 보기에 뜨거웠고, 순수했고, 아름다웠던 면이 있었다.

버릇없이 자란 아이는 집안은 말할 것도 없고 지역 사회를, 더 나아가 한 국가를 망친다. 이제라도 과감하게 수술을 해야만 한다. 교육부를 비롯해 시도교육감은 이런 문제를 직시하고 선량한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자녀들의 올바른 인성 교육을 위해 열린 마음으로 협조해야 한다.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52	예 향 부 220-0692	기 획 관 리 국 227-9600	
경 제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업 무 국 220-0551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21	FAX 222-0195) (FAX 222-0195)	
전 남 본 부 220-0680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